<7-1> 미술의 메카 파리->뉴욕. 문화예술 원래 경제를 따라가게 되어있다.

2차 대전 후 과학기술 문명에 대한 회의, 인류가 발전시켜왔다는 문명이라는 것이 뭘까? 이성, 합리적인 것에 대한 회의. 불확실성, 우연성, 본능에 대한 존중에 대한 사고가 싹틈. (인문학적, 시대적 배경)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는 듯한 표현적 추상, 뜨거운 추상. Ex)칸딘스키

기하학적 추상, 차가운 추상. ex)몬드리안 🡪 (둘 다 양대 산맥으로 발전)

미국 – 표현적 추상. But 추상표현주의 용어 안에는 기하학적 추상, 구상미술 같은 것도 들어감. 추상표현주의 🡺 1940-50년대 미국 뉴욕에서 일어난 미술 운동. 어떤 그룹이나 성명서를 발표하며 시작x, 1942-46년 페기 구겐하임, 베티 파슨 화랑에서 여러 차례 전시회를 거치면서 하나의 미술사조로 형성됨.

로젠버그 - 액션페인팅, 그린버그 – 색면회화 // 둘 다 추상표현주의.

16,17) 색면주의, 액션페인팅 두 경향 모두 나타남.

전쟁 거치며 많은 미술가들 뉴욕으로 망명. Ex) 칸딘스키, 몬드리안 뉴욕으로 망명.

15) 한스 호프만 – 미술교실 // 독일인->미국으로 망명. 미술school을 열게 됨. 유럽에서 일어난 조형예술의 발달에 대해서 젊음 미국의 학생들에게 강의.-->유럽 미술에 관심. 세잔느가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사실적으로 모방하지 않고 현대미술은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가? 평면성, 물질성의 방향으로 발전. 회화는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세계이다. 임을 가르침.

추상표현주의 – 한스 호프만(but 교육자적 입장) 속함.

1. 유럽 미술가들의 미국으로 망명. (미국 미술계 변화)

2. 젊은 예술가들은 언제까지 유럽 예술을 모방 할 것인가. 미국적인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젊은 미술가들의 미국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

예술가연합(당시 경제 어려움, 뉴딜정책) – 그 곳에 속한 젊은 미술가 대부분 추상표현주의 추진.

젊은 미술가들이 미국적인 정체성을 가진 미술을 정립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유럽 미술을 따라 할 수 없다. 이런 사고를 가진 젊음 미술가들이 위 전시회에서 작품 전시하며 하나의 미술사조 형성.

미국 정부가 의도성 가지고 한국 비롯한 아시아, 제 3세계에 선전. (미국 정부의 조직적 홍보)

17) 피카소 <화실> 1925 // 형태들이 분해되서 재배치. 2-3차원 왔다갔다하며 2차원으로 가려하는.

고르키 – 형태 분해해서 재배치. 피카소가 보여준 공간 개념 존재.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음. 유럽의 미술의 영향 안에서 발전. 큐비즘. 초현실(무의식, 잠재의식, 환상, 신비).

**고르키 - 세잔과 피카소의 영향받음. 미로, 마송 등 초현실주의 유기체적 형태에 영향받음. 칸딘스키의 표현적 추상에 관심.**

18) 아실리 고르키 <간은 수탉의 볏이다> 1944 / 고르키 <수수께끼의 전투> 1936-37

초현실주의의 무의식, 잠재의식의 표현에 관심을 가짐. 유동적인 선과 색채, 선적 구성 등은 칸딘스키, 초현실주의 영향. 자동기술법 사용.

**\*\*고르키가 보여준 생물형태의 유기체적인 요소와 자동기술법은 폴록의 액션페인팅으로 발전한다.**

한스 호프만, 아실리 고르키는 유럽 미술과 미국 미술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 과도기적 역할을 한 사람.

잭슨 폴록 - 미국의 신화 전설, 미국판 반 고흐.

미국 사람들에게 피카소는 전지전능하고 대단하게 느껴짐. 미국사람들에게 유럽은 선조의 나라. 대단한 나라. 🡪 이런 유럽 사람들이 전쟁으로 미국에 옴. 그 사람들 전시를 직접 눈으로 보는 건 대단. --> 미국 미술계가 유럽 미술을 쫓아다니는 현상.(유럽미술전시회만 열고, 젊은 미국 미술가 외면..?) 🡪젊은 미국 미술가 데모. 우리만의 미국만의 정체성을 가진 미술 등장.

미국(ex 인디언 등)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결합.

1. 본능적인 자발성을 강조하는 자동 기술법. 이는 초현실주의 영향 받은 것.

자동 기술법 : 드리핑(뿌리기). 본능적이고 우연성. 데칼코마니, 프로타주(마루바닥에 종이 놓고 그리면, 종이에 마루바닥 무늬).

2. 유동적인, 생물 유기체적인 선적 구성, 형태가 집중적으로 그려짐.

유럽의 양식.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심. 프로이드, 융 등 정신 분석학에 관심. 멕시코 벽화의 영향, 인디언 부족 미술의 특성 반영

19) 잭슨 폴록 <엘 그레코 그림 모사> 1933-48 // 가장 유럽미술과 미국미술의 차이점을 만들어준 사람. 유럽 미술은 사이즈 작다. 그림 그리는 이젤에 앉아서 붓으로 캔버스에 그림. 인디언이 모래 위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캔버스를 바닥에 올려놓고, 뛰어다니며 도구를 가지고 작업을 함(인디언 부족의 미술에서 영향). 유럽에서 건너갔지만 미국의 특성과 결합하며 미국적인 미술 탄생.

20) 잭슨 폴록 <남성과 여성> 1942 / 피카소 <거울 앞의 여자> //

피카소 -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여성과 동일한지 아닌지, 심리적인 느낌.

폴록 – 피카소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음. 피카소, 초현실주의에 대한 관심(유럽 미술에 대한 관심)

21) 잭슨 폴록 <암이리> / 잭슨 폴록 <파시파에> / <암이리>, 청동, 고대로마. B.C. 500 //

3번째의 청동 고대로마의 조각품을 보고 그린 것. 원시적인 느낌. 고대 그리스 로마신화에 관심. 실제로 동아리를 만들어 공부를 많이 했음. 특히 고대 로마의 거칠고 원시적인 데에 관심. 또한 융과 프로이드 등에 관심. 본인이 정신 분열증으로 고통을 받던 사람.

이 모든 것이 멕시코, 인디언들의 느낌 많이 받으려 노력.

22) 잭슨 폴록, <가슴안에 있는 눈들> 1946 / 잭슨 폴록, <새> 1938-41 //

폴록은 초기작품에서 융의 인간 내적인 심리를 바라보는 눈에 주목. 공중에 떠 있는 눈은 신의 눈이자 자아의 눈.

공중에 떠있는 눈은 신의 눈이나 자신의 눈. 🡪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자기 자신을 바라보려는 작가의 의지.

개인의 심리 연구(프로이드). 집단 무의식(융) : 개인이 집단에 속해있을 때, 집단의 특성에 맞춰서 간다.

23) 잭슨 폴록 <No. 8> 1949 / 잭슨 폴록, <1#31>, 1950 //

1947-1951 드리핑 기법 -> 미국 미술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드는데 최고의 기여자.

캔버스를 바닥에 놓고, 물감을 뛰어다니면서 뿌리거나 걸으면서 뿌리거나 물감통을 던지면서 만들어진 그림. 계획x, 드로잉x, 스케치x. 우연성 본능에 의해 완성된 작품. (그렇다고 전혀 이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그림으로 미국 미술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어 놓음.

추상표현주의 옹호하면서 개념 정리 – 그린버그.

추상표현주의 대표적 예술가 – 폴록, 추상표현주의 대표적 이론가 – 그린버그.

미국사람들은 모더니즘 미술의 선구자 ‘마네’로 생각. 평면성, 사실성의 대두, 물질성을 향해서 발전하는 데 있어 첫 선구자. 평면성 물질성 왜 중요? 회화가 자연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독립 자체하기 위해 회화가 가지고 있는 조건(캔버스의 평평한 표면, (물감, 붓질)물질성)이 앞서야 하므로. 평면성과 물질성이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에 와서 완성됨.

회화는 이야기가 아닌 물감으로 뒤덮인 그 무언가인 것이다.

잭슨 폴록 – 드리핑 기법(뿌리는 기법). 색채가 가지고 있는 명도, 채도에 의해서 사실 깊이감이 있다. 2차원과 삼차원을 끊임없이 왕래하지만, 그린버그는 잭슨 폴록의 작품을 보며 캔버스의 표면을 존중하는 진정한 모더니즘 미술이라 칭찬. 유럽에서 일어난 모더니즘 운동이 미국에 와서 완성되었다.

유럽 미술, 멕시코의 벽화, 인디언 부족의 문화와 미술에 대한 영향을 🡪미국적 정체성으로 만듦.

피카소(큐비즘), 초현실주의의 영향도 반영. 또한 이런 색채, 거칠고, 원시적인 느낌 -> 토템적인 분위기(인디언, 멕시코 미술에서 볼 수 있는). 융과 프로이드 심리학에도 관심.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관심.

24) 잭슨 폴록 <No.7> 1952 / 잭슨 폴록 <심연> 1953 // 왼쪽 그림은 사람의 모습처럼 보임. 오른쪽은 깊이감 있어 보임. 평면적으로 보이진 않음. 구상적이고, 오히려 깊이감이 있는 작품을 선보임. 평단에 혹평을 받게 됨. 그 것을 못 견디어하는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사망.

드리핑 회화 – **전통에 대한 거부.** 붓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아니라 캔버스를 놓고 바닥에 뿌림. 또한 전통적 유채 물감 아닌 공업용 물감 사용. 거대한 사이즈. 인디언 미술의 반영. 🡪미국적 미술로 만듦.

신체 제스처가 들어감(뛰어다니면서 물감 뿌리는 과정?)으로써, 본능 자유 해방감의 특징이 나타남. 격렬한 무엇인가를 보여줌 🡪 액션 페인팅

자아와의 격렬한 싸움(주제). 영웅주의적인, 과도하게 작가의 자아가 들어감.

신체 제스처에 의존하여 물감의 물질성, 격렬한 본능, 함께 평면성까지 탐구.-->액션 페인팅

25) 프란츠 클라인 <형상 8> 1952 / 프란츠 클라인 <뉴욕> 1953 서체

추상표현주의의 또 다른 특징 - **동양미술의 영향**이 나타남. 미국에서? 일본과 중국, 특히 일본이 유행처럼 서체, 수묵화 유행. 추상표현주의에는 수묵화, 서체에 대한 영향이 보여진다.

28) 드 쿠닝, <여인 1>, 1950-52 / 드 쿠닝, <여인 2> 1952 //

드 쿠닝은 1950년부터 회화에서 주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구상으로 <여인> 연작 20년이 넘게 몰두 – 추상표현주의의 가장 중요한 멤버로 부상.

추상표현주의가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표현적 추상도 들어가지만.. 추상표현주의는 1940-50년대 미국 미술을 지칭하는 용어로써 생각.

드 쿠닝은 네덜란드->미국으로 온 사람왼쪽 그림은 서양미술의 전통에 근접한 그림. 색채도 루벤스 등 화사한 색채 연상. 어쨌든 여성. 가장 미국적이다. 거친 붓터치. 파편화되어 있는 듯한 여인의 육체. 성이 상품화되는 20c 중엽의 여인의 모습. 붓터치 하나가 면 하나가 된 경우도 있다. 색채로 인해 깊이감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피카소의 큐비즘의 공간 반영.

잭슨 폴락 – 인디언들의 문화 미술에 영향을 반영.

드쿠닝 – 서양미술의 전통을 가지고 새롭게 미국에 대중사회의 모습. 성이 상품화된 미국의 여인 보여줌. (유럽미술하고 완전히 분리되진 않는다.)

29) 뭉크 <마돈나> 1893 // 19c. 뭉크는 그 당시 19c에 여인을 그려놓고 성적으로 자유분방하고 그와 같은 시대 반영.

27) 토비 <숲의 그림자 정령들> 1961 / 토비 <8월의 끝> 1955 //

일본, 불교에 심취해서 동양미술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밝힌 사람. 뉴욕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잘 모름. 미국사람들은 미국적인 미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본에서 발견한 명상적 서예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한 독창적인 <백색글씨>을 연작한다. 토비는 점점 우주의 신비와 영적인 문제에 몰두.

30) 마크 로스코 <회색 너머 빛> 1956 / 마크 로스코, <주황과 노랑> 1956 //

색면주의 - 정신적인 사유 작용 강조. Ex)바넷 뉴먼, 마크 로스코

액션 페인팅의 후세대처럼 느껴지지만 동시대 활동.

화가의 감정을 정화시키고 절제 시키면서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의미를 회화에 부여하는 것이 특징. – 그린버그가 붙인 용어(색면주의).

모더니즘 미술이 평평한 표면 강조(캔버스의 평평한 표면만이 실제다.)

색면주의자들은 색면을 명상과 사색의 장으로 만든다. ‘크면 클수록 색채의 강도가 깊어진다.’

색채의 존재 주장. 거대한 사이즈가 특징!